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기드온의 양털 [사사기 6:33-4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33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좃고 35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좃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찌기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을 내어놓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용, 결혼, 교육 그리고 투자.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난 후 기드온이 한일은 무엇인가요? “고작 양털을 내놓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기드온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었습니다. “34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좃고” (사사기 6:34).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일 미래에 겁이 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품성을 파괴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태운 불을 통해 그에게 이미 표징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기드온에게 충분치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고,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수적으로도 많은 열세였습니다.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사사기 6:36). **기드온은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털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순종하길 주저하고 있나요?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곤 순종밖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람의 관계나 결혼관계 내에서 서로 불평등한 짐을 요구하거나 메지 마십시오. 공부하고 우리의 은사를 그 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업은 그 분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확신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분의 약속들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

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6c,14:7c)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b) "여호와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7) 그러므로: 봉사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거나 구하는 대신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1).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식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기 보단 어느 선택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분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양털을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두 번이나 상기시켰고 또 두 번이나 기적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재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16:4).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안에 두려움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10).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할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정확하게 행하셨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즉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이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